

‘탈원전’ 공식 폐기, 원전 30%로 확대



▲ 건설 유보 중인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 사진=gyeongbuk.com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히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 4기도 임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치(23.9%)를 대폭 상향 조정할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였던 원전 비중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대폭 올리기로 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여타 발전원 비중 목표치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담지 않았다.

석탄발전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를 명확히 밝힌 이전 정부 계획과 달리 "수급 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올해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원별 비중 수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기위원회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국민 91%, 전체 국토 6.7%에 몰려 살아

한국 국민 약 91%가 전국토의 6.7%에 해당하는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비도시 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방 도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성장의 불균형, 지방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 대비 3.8% 면적의 도시 영역에 79.3%의 인구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준도시 영역 면적은 2.9%를 차지했으며 11.5%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의 영역을 준도시까지 확장하면 총인구의 90.8%가 전국 6.7% 면적에 밀집돼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국토를 1km 격자로 나눈 뒤 거주 인구 1,500명 이상인 격자끼리 모여 있는 '격자 군집'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때를 도시로 구분했다. 인구 300명 이상~1,500명 미만인 격자의 군집은 준도시, 이외는 비도시로 분류했다.

통계청은 최근 20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



▲ 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심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도시가 커졌지만,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기존 도시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역 내 도시기능이 축소될 경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거주지로서의 불편이 가중돼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 ... 전세도 내림세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노·도·강'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소형 주택이 많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1주일 새 하락폭이 커졌다.

7일 '한겨레'는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인용해 7월 둘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0.03%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 매매지수는 5월 넷째주(5월30일 기준) -0.01%부터 6주 연속 내림세다. 지난 1월 셋째주(1월24일 기준) -0.01% 이후 주간 기준으로 4월 마지막주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하락이나 보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노원(-0.08%)·강북(-0.08%)·도봉(-0.06%)·은평(-0.06%)·동대문(-0.06%)

구 등 강북 지역의 내림세가 비교적 가팔랐다.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는 0.01% 떨어져, 최근 3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0.07% 하락했고, 수도권을 뺀 지방도 0.02% 내렸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 인상 및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하방압력과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시세도 하락세다. 같은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02% 하락해 4주째 내렸다. 종로(-0.05%) 용산(-0.04%) 서대문(-0.04%) 양천(-0.04%) 구 등이 전체적인 내림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